

2) 조례동 유적

최근 조례동에서도 철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1995년 순천대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인데, 순천만에 인접한 계곡 평지에 있으며, 주거지 형성 당시에는 바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는 모두 3기이며, 장방형의 평면 형태를 가진 주거지는 장변 4.6m 이고, 단변이 3.6m 이다. 내부시설로는 기둥자리 4개가 배치되어 있고, 주거지 동북쪽에 화덕자리 1개가 있다. 유물은 주로 화덕자리 근처에서 우각형파수를 비롯한 적갈색 연질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주거지의 근처에서 한 변 길이 2.5~2.8m 크기의 소형 수혈 2기가 발견되었는데, 주거지의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적갈색 연질의 발형·장난형·시루 등의 토기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취사시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